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2

금의환향

장보고가 귀국한 지 몇 달이 지나서였다. 탐진현 치소 향리는 장보고 귀국 환영회를 갖고자 고을마다 군사를 보내 알렸다. 귀국 환영대회가 몇 달 늦어진 것은 장보고가 왕경(王京)인 서라벌로 가서 흥덕왕을 알현하고 대신들을 두루 만나 청해진 설치 등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의논해 왔기 때문이었다. 흥덕왕은 김대렴 등의 대신에게 장보고가 어떤 인물인지 보고받았지만 선왕 때 없던 일이었으므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는 서두르지 않고 왕경에 머물면서 왕과 대신들을 설득했다. 몹시 궁핍해진 왕궁에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금괴와 은전을 기꺼이 내놓기도 했다. 마침내 장보고는 자신의 뜻대로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와 서남해안 일대의 당구들을 소탕한다는 조건으로 사병 1만 명을 통솔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뿐만 아니었다. 장보고는 당나라 신라소와 같은 청해진의 지위와 권한을 받아냈다. 이로써 장보고는 세금징수, 무역, 군사운영 등을 왕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탐진현으로서는 큰 경사였다. 당구들의 노략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특히 대구소 일대 도공들은 장보고가 당나라 등주, 양주, 명주와 일본 하카타(博多) 등에 탐진 도자기를 잘 팔아줌으로써 폭우나 가뭄 때문에 사오년 터울로 되풀이 되는 기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탐진현 치소 향리는 환영회를 준비하는데 보름 이상 애를 썼다. 이제 장보고는 십수 년 전 활쏘기대회에 참가한 장정이 아니었다. 청해진 대사로서 나라의 대신 급이었다. 치소 향리는 가리포 별장을 무진주와 남원까지 보내 장정들을 불러 모았다. 장보고가 왕경으로 떠날 때 어느 고을의 장정이든 가능한 한 많이 모이도록 가리포 별장을 치소 향리에게 보내 지시했던 것이다. 장보고는 그들을 모두 사병으로 받아들일 셈이었다.

사람들이 장보고를 보기 위해 이틀 전부터 모여 들었다. 치소 향리는 활터에 미리 온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다. 활터로 가는 들길마다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장정들이 대부분이었다. 늙은 농부들은 논밭에서 일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활터로 가는 장정들을 바라보았다. 이십대의 장정들 중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삼십대의 한 사내가 말했다.

“무신 일로 가는가?”

“군사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왔그만요.”

“누가?”

“청해진 장보고 대사님이요.”

염장은 알면서도 묻고 있었다. 지금은 무진주에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 친구였던 가리포 별장에게 들었던 것이다.

“장보고 대사님이 누군디?”

“청해진 대사님이랑께요. 메칠 전부텀 소문이 돌았그만요.”

“대사가 뭇허는 사람인디?”

“중죄인 사형시키고, 사형시킬 사람 살리는 권한 말고는 다 있다고 허그만요.”

이십대의 장정은 제법 똑똑했다. 염장은 양미간 사이에 큰 점이 있는 그를 눈여겨보았다. 실제로 장보고에게는 사형권과 사면권 말고는 모든 권한을 흥덕왕에게 받아온 상태였다. 염장이 물었다.

“이름이 뭐가?”

“김흑점이그만요. 이마에 꺼먼 점이 있다고 에린 시절부터 흑점이라고 불렀그만요.”

“알았네.”

“성님은 뭘 일로 간당가요?”

“가리포 별장이 내 친구여. 나도 군사가 되고 짚어서 왔그만.”

“군사가 아니라 군관이 되겠지라우. 별장님이 친구람시료요.”

“하하하.”



염장은 순식간에 장정들을 헤치고 성큼성큼 앞서 갔다. 이미 활터에는 탐진현 사람들과 타지에서 온 장정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활터 정자인 사정(射亭)에는 치소 향리와 장보고가 호상에 앉아 있었다. 가리포 별장은

장보고 뒤에 서서 긴 칼을 손에 잡고 있었다. 별장이 눈짓으로 지휘하자 호위군사들이 사정을 빙 둘러서서 경계했다.

최녹천은 사정 앞 세 번째 줄에 앉아서 장보고를 올려다보았다. 장보고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사십대 초반이 된 장보고의 모습은 조금 변한 듯했지만 예전 그대로였다. 월주 청자가마 주인에게 노비로 팔려가 있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이었다. 눈썹은 짙고 눈은 무장답지 않게 온화했다. 다만 몸집은 그때보다 더 커져 있었다. 그러나 다부진 몸집은 큰 키와 잘 어울렸다. 최녹천은 산동반도 적산포에서 귀국하기 위해 장삿배를 타기 전에 장보고가 했던 말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았다.

“고향에 가더라도 여그 청자를 맹그시오. 그것이 내게 은혜를 갚는 길이요.”

최녹천이 울고 있자, 염장이 다가와서 물었다.

“이 좋은 날 뭣이 슬프다고 그래요?”

“대사님을 뵈니 반가워서 그래요.”

“반갑담서 울다니 이상허요. 여그 사람덜이 모다 보고 있던 말이요.”

사정 앞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최녹천을 쳐다보고 있었다. 최녹천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슬그머니 활터 밖으로 나와 버렸다. 염장은 따라오지 않고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보니 보자기로 떠돌던 시절에 염장을 가리포나 남당포에서 보았던 것도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염장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을 리 없었다. 최녹천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염장은 남의 밭에 들어가 자두나 복숭아 서리를 앞장서서 하는 악동이었다. 그러다가도 주인이 나타나면 소리치며 먼저 도망치는 약삭빠른 아이였다. 결국 그의 가족은 어느 해 지독한 흉년에 무진주로 떠나버렸는데 손버릇이 나빴던 그 아이가 바로 염장이 틀림없을 것 같았다. 활터에서 나온 최녹천은 장보고를 만나지 못한 채 미산포로 돌아와 버렸다. 기다린다고 해도 대사가 되어 금의환향한 장보고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아내 연화가 사립문 밖으로 나와서 말했다.

“대사님은 뵈었나요?”

“사람덜이 개미떼뎡기로 몰려와 뵐 수 읍을 거 같아서 와부렀네.”

“무신 일로 모인 사람덜인디요?”

“환영대회인디 대사님께서서 군사를 모집허는갑서. 궁께 젊은 장정덜이 산지사방에서 모여들었겄제.”

“좋은 일이그만요.”

“암은. 가리포에 군사가 있으믄 당구덜이 인자 얼씬도 못헐 것이여.”

“지도 좋은 일이 생겼그만이라우.”

“뭇 일인디?”

“지 배 쪼간 만져보시씨요.”

최녹천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인은 모심기 품앗이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용이는 연화가 심부름 보내서 없었다. 최녹천은 연화 허리춤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그러자 불룩한 배가 만져졌다.

“위메, 애기가 아니여?”

“그럼마요. 애기가 생겼어라우.”

“아이고메, 참말로 좋은 일이네. 글고 메칠 후라도 가리포에 가서
대사님을 뵈라네. 대사님이 오셨는디 우리만 몰랐등마. 대구소
향리님이나 정 족장님은 아셨겄제잉.”

“그래야지라우. 대사님은 은인이신디.”

“그나저나 고맙네. 애기를 가져줘서.”

최녹천은 마을에서 고아 용이를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우고는 있지만
자식이 또 있기를 바라왔던 것이다. 그것은 연화도 마찬가지였다. 용이가
“엄니, 엄니” 하고 용케도 잘 따랐지만 언제 떠나버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끔 들곤 했던 것이다.

초저녁 때까지도 최녹천은 입가에 웃음을 달고 가마 주변을 정리했다.
가마에 청자 유약을 바른 기물들을 넣으려면 봉통과 가마 안의 재를
치워야 했다. 습기를 머금은 재는 축축했다. 그런데 가마 안 정리를 막
끝내고 났을 때였다. 정 족장의 노비 꺼먹이가 쟁걸음으로 왔다.
꺼먹이가 큰소리로 말했다.

“족장님께서 부르시그만요!”

“무신 일인디?”

“손님덜이 여러 분 오셨그만이라우.”

“으디서 오신 손님덜인가?”

“대사님이라고 허든디요.”

“아이고메, 족장님택에 대사님께서 오셨다고?”

아내 연화가 재촉했다.

“은인이 오셨는데 얼릉 땡겨오시지요.”

“그래야제.”

최녹천은 옷에 묻은 흙을 털고 나서 꺼먹이를 뒤따라갔다. 반발 뒤에서 꺼먹이에게 물었다.

“누구누구 오신 거여?”

“마님허고 따님이 겨시그만요. 한 사람은 당인이라고 허고요.”

“당에서 뭇 땡시 왔을까? 장사꾼인 모양이네.”

“지는 잘 모르지라우.”



과연, 정족장 사랑방에는 장보고 말고도 꺼먹이가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 족장은 이제 머리가 온통 백발이었다. 노환을 앓고 있어서인지 볼은 홀쭉했고, 눈이 더욱 쾅하게 보였다. 최녹천은 장보고를 보자마자 큰절을 했다.

“치소 활터에 갔다가 지는 대사님을 뵈그만요.”

“그랬는가? 청해진 군사가 되겠다고 자원한 장정덜이 하도 많이 와서 나도 정신이 읊었네.”

“나도 몸이 성하다든 치소로 갔을 것이요.”

정 족장이 치소로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장보고가 말했다.

“족장님, 지가 진작에 찾아와 뵈었어야 했는디 서라벌에서 일을 보니라고 늦었그만요. 인자 지뜻대로 다 되었응께 족장님을 가끔 뵈겠습니다요.”

“대사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소.”

정 족장은 장보고에게 예전과 같이 하대하지 못했다. 대신이 되어 돌아왔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장보고가 최녹천을 보고 말했다.

“아참, 이 사람은 내 안사람 허씨네. 부모님이 천관산 남쪽 큰 연방죽 옆 마실에 살다가 당에 들어왔다고 허대.”

천관산 남쪽 연방죽 옆 마을이라면 연화의 고향이기도 했다. 쌍계사 주지스님이 아내의 고향을 전해 듣고는 연화보살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허씨 부인 옆에는 예닐곱 살 되는 딸이 얇전하게 앉아 있었다. 허씨 부인은 방 안을 환하게 할 정도로 미모가 빼어났다. 딸 역시 우락부락한 장보고를 닮지 않고 허씨 부인을 빼놓은 듯 피부가 희었으며, 눈이 컸고 입술은 붉은 앵두 같았다. 최녹천은 장보고의 부인에게도 큰 절을 했다. 그제야 장보고가 사십대의 당인을 소개했다.

“자계 당전에서 월주가마 도공덜을 가르치고 관리하던 행수도공이시네. 나는 행수도공을 대구소에 두고 여그 도공덜을 가르칠 생각이네. 공께 최 도공도 행수도공에게 많은 기술을 배워볼게.”

“알겠습니다요.”

최녹천은 장보고의 지시를 받자마자 당나라 자계 출신인 곽명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곽명인이 고개를 거만하게 뒤로 젖히며 최녹천의 인사를 받았다. 최녹천은 월주가마에서 당인들에게 꺾박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짐짓 불편했지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장보고가 곽명인에게 월주가마 기술을 배우라고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최 도공, 필시 신라인 도공덜이 모르는 비법이 있을 것이네. 알겠는가?”

“예, 넬부터라도 대구소를 땡김시로 배우겠습니다요.”

곽명인이 최녹천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야릇한 웃음을 흘렸다. 그때였다. 정 족장이 참지 못하고 아들 정년의 소식을 장보고에게 물었다. 장보고가 겸연쩍게 말했다.

“메칠 전에 들어온 장삿배 우두머리 궁사에게 동상 소식을 들었그만요.

동상이 지가 세운 법화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떠났다고 허드그만요.”

“연이가 신의를 저버렸그만요. 장수가 되겠다는 지 욕심 땀시 그랬을 것이요.”

장보고는 정 족장에게 정년이 왜 산동반도 법화원에서 살게 됐는지를 길게 설명했다. 무령군이 해체되자 장보고의 신라소로 왔다가 법화원

창건 감독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소 압아 장영과 갈등이 생겼다. 장영이 법화원의 관리까지 맡으려 하자 정년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졌던 것이다. 정년은 법화원을 떠나 사주(泗州) 연수현(漣水縣)으로 갔다. 변방의 장수 풍원규(馮元規) 휘하로 들어가 무장으로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풍원규는 자신의 휘하에 이미 여러 명의 장수들이 있었으므로 정년을 받아줄 수 없었다. 정년은 작년 겨울을 변방에서 나는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다. 할 수 없이 장년은 풍원규를 찾아가 “저는 신라로 돌아가 장보고 성님에게 몸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풍원규가 “그대는 보고의 지시를 어기고 이곳에 왔는데 괜찮겠소?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보고에게 신세를 지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요. 어찌해서 신라로 가서 보고의 손에 목숨을 맡기겠다고 하오?”라고 만류했지만 정년이 “이곳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며 죽느니 전투를 벌이다 호쾌하게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신라로 귀국할 뜻을 비쳤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리포로 들어온 장삿배의 우두머리 공사가 풍원규를 만나 직접 들었으며 장보고에게 전해주었던바, 조만 간에 정년의 귀국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정 족장이 무겁게 말했다.

“연이를 받아줄까요?”

“족장님 무신 말씀입니까요? 연이는 지 동상인디.”

“대사님은 본래 맴이 바다멧기로 짚고 넓었소. 반면에 연이는 누구한테나 무술이든 빛이든 지지 않을라고 허는 맴이 강했지라. 공께 속 좁은 연이를 대사님이 지금까지 품어주었다는 것이요.”

“과찬이그만요.”

“정년이가 법화원을 떠나 풍원규를 찾아간 것도 대사님 같은 큰 장수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요.”

“지는 동상을 아직도 믿지라. 법화원을 떠나 풍원규에게 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요.”

“아이고, 대사님 도량은 참말로 크요. 연이가 아무리 무술로 대사님을 뛰어넘을라고 해도 대사님의 손바닥 안이겠지라.”

장보고는 정년이 왜 무령군에 끝까지 남으려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장보고가 군중소장이 되자, 자신도 그 지위까지 오르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다. 어찌 보면 정년의 검술과 창술 실력은 장보고보다 앞섰다. 장보고가 정년보다 앞선 무술은 궁술뿐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장보고 가족은 정 족장의 별채에서, 광명인은 사랑방 윗방에서 잤다. 별채 작은 처소는 장보고가 젊었을 때 기거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최녹천은 별채까지 따라가서 장보고에게 인사한 뒤 헤어졌다. 장보고는 새벽에 미산포로 떠날 것이라며 입바람으로 혹 호룡불을 켜다.<계속>